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상담 경험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 합의적 질적 연구(CQR) 결과와의 비교¹⁾

이정우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수료

이소연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²⁾

초록

본 연구는 심리상담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의 경험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인간이 수행한 질적분석과 기계를 활용한 텍스트 기반 분석이 제시하는 관점의 상호보완성을 탐색하고자 텍스트 마이닝 분석과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결과를 비교하였다. 보호종료 후 심리상담을 경험한 자립준비청년 10명(남3, 여7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심층면담 자료에 대해 TF-IDF 분석과 LDA 토픽모델링을 실시하고, 이를 선행 CQR결과와 체계적으로 대조하였다. 분석 결과, 두 방법론은 자립준비청년의 상담 경험을 구성하는 핵심 주제에서 높은 수렴성을 나타냈다. 공통적으로 도출된 주요 영역은 정서적 어려움, 관계 및 생활 스트레스, 상담자와의 상호작용, 정서적 지지 경험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CQR-텍스트 마이닝 비교 분석은 동일 자료에 대한 두 방법론의 차별적 기여를 보여주었다. CQR이 참여자의 주관적 의미와 경험의 깊이를 포착하여 상담관계의 질적 측면과 내적 성찰 과정을 드러낸 반면, 텍스트 마이닝 분석은 CQR에서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상담 회기 수, 지원방식과 같은 상담의 구조적 조건과 보호종료 경과 기간에 따른 맥락적 차이를 주요 내용으로 도출하였다. 이는 연구자의 해석 중심 접근과 데이터 기반 패턴 분석이 서로를 보완·교차 점검함으로써 동일 현상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러한 결과는 정성적 질적 분석과 텍스트 기반 패턴 분석이 서로 다른 층위의 정보를 제공하며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키워드

자립준비청년, 심리상담, 내담자 경험, 텍스트 마이닝, 합의적 질적 연구

Manuscript received November 30, 2025 / Revision received December 20, 2025 / Accepted December 22, 2025

1) 본 연구는 LG전자가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마음하나 사업’을 통해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의 의뢰를 받아 수행함

2) 교신저자: leesy@sookmyung.ac.kr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ShareAlike 4.0 International License

1. 서론

보호자의 부재, 학대, 경제적 곤란 등의 이유로 가정 내에서 양육될 수 없는 아동은 가정 외 보호체계에서 성장하게 되며,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스스로 자립을 시작해야 한다. 이들은 과거 ‘보호종료아동’으로 불렸으나, 2021년부터는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보건복지부, 2021, 07. 13.). 매년 약 1,000~2,0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체계를 떠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 수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권봉목 외, 2021).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이후 돌봄 체계에서 독립하며, 정서적·경제적·사회적 기반이 급격히 약화된 상태에서 성인기 초기의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들은 주거 불안정, 경제적 부담, 사회적 고립감, 관계 단절 등 여러 위험요인을 동시에 경험하며, 이러한 어려움은 높은 수준의 정서적 취약성과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이정우, 이소연, 2023; 황종인, 김장희, 2021). 실제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실태 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 후 3~4년차에 자립준비청년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고, 자살 생각 경험 비율이 일반 청년 대비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또한, 보호종료 이후 초기 수년 동안은 우울·불안·대인관계 어려움 등의 어려움이 빈번히 보고되며, 심리·정서 지원체계에 대한 접근 역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김지선, 2021; 이정애, 정익중, 2020). 이는 자립지원체계의 정서적 지지 기능 강화와 더불어 정서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권봉목 외, 2021). 이러한 맥락에서 심리상담은 자립준비청년의 정서적 안정, 관계적 지지 확보, 자기이해 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개입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심리상담 개입이 자립준비청년에게 더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심리상담에서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요인이 상담 참여와 상담에 대한 만족 및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의 상담 경험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연구들은 주로 소규모 자립준비청년 내담자 대상 질적 연구(손수민 외, 2024; 이정우, 이소연, 2023), 특정 치료 기법 사례 연구(신재은, 최광현, 2024), 자립준비청년 상담 효과성 및 상담 경험에 대한 혼합 연구(최해연, 백지성, 2024), 자립준비청년을 상담한 상담자 관점 연구(이정우 외, 2023) 등이 있다. 이들을 고찰해보면 공통적으로 자립준비청년에게 심리상담이 중요한 개입임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내담자 관점 연구들은 자립준비청년이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 상담을 시작하며, 공감적이고 수용적인 상담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기이해와 상처 회복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손수민 외, 2024; 이정우, 이소연, 2023). 심리상담 효과성 연구에서는 상담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 감소, 자아존중감 및 자아정체감 향상 등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최해연, 백지성, 2024). 이러한 연구들은 자립준비청년 심리상담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지만, 여전히 이들의 복잡한 상담경험을 다층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방법론적 한계를 가진다.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상담 경험을 보다 심층적이고 다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내러티브의 맥락을 넘어서는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 기존 선행 연구들은 연구자의 해석적 관점을 통해 중요한 주제를 도출했으나, 참여자들의 실제 발화에서 반복되는 언어적 패턴이나 잠재된 구조는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다. 또한, 보호종료 이후 시기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의 개인적 상황과 심리상담 경험이 다르게 보고되었으나(이정우, 이소연, 2023), 이러한 시기별 차이가 상담 접근성, 회기 구조, 상담자와의 상호작용과 어떻게 연결되어 상담 경험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여전히 부족하다. 나아가 어떤 요소가 상담 참여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단일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적 다각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전통적 질적 연구 방법과 새로운 분석 기법을 결합한 혼합적 접근법이 제안된다. 심리상담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방법은 평정팀 간 합의와 감수자의 검토 과정을 통해 해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서·관계·내적 경험과 같은 치료적 의미를 풍부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Hill, 2012). 그러나 CQR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일단 시간과 노동이 많이 요구되고, 8~15명의 소규모 표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험의 전체적 구조나 집단 간의 차이를 탐색하기 어렵다. 또한 평정팀 간 합의 과정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연구 초점이나 해석적 관점이 개입될 수 있다. 예컨대, 연구자가 특정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 데이터에서 해당 이론과 부합하는 주제를 우선적으로 도출하거나, 팀원 간 합의 과정에서 주도적 연구자의 관점이 과도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CQR의 영역 중심 범주화 방식은 개별 영역을 구분하는 데는 유용하나, 영역 간 숨겨진 연결고리나 참여자 언어에서 반복되는 미묘한 패턴을 놓칠 수 있다. 가령 ‘상담자 관계’와 ‘정서적 변화’를 별개 영역으로 분류할 때, 두 영역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순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최근 상담 및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면담 발화나 상담기록의 언어적 패턴을 자동 추출하는 텍스트 마이닝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김하선 외, 2023; 박세린 외, 2024; 박해선 외, 2023; Atkins et al., 2012; Tanana et al., 2016).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분석은 문서 내 단어의 상대적 중요도를 계산하여 핵심 개념을 추출하는 데 유용하며, 대규모 텍스트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Ramos, 2003). 예를 들어, 상담 대화록의 치료적 기법 사용을 TF-IDF로 추출해 상담자의 개입 패턴과 내담자 반응 간 관계를 검증한 연구에서는 특정 단어의 반복 사용이 치료 동맹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

도 하였다(Goldberg et al., 2020). 또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토픽 모델링은 잠재된 의미 구조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법으로, 연구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주제나 언어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Blei et al., 2003). 부부상담 대화록을 LDA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인식하지 못했던 갈등의 잠재적 패턴과 치료과정의 의미 있는 주제들을 발견하였고(Atkins et al., 2012), 1,553개 심리치료 세션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LDA 분석이 인지행동치료, 정신역동치료 등 서로 다른 치료 접근법을 높은 정확도로 분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Imel et al., 2015).

최근 연구에서는 기계 기반 텍스트 분석이 인간 연구자의 코딩과 비교했을 때 높은 재현성과 빠른 처리 속도를 보이며, 심리상담 연구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제안되었다(Imel et al., 2015). 또한, 질적 분석과 텍스트 마이닝을 병행하거나 비교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두 방법의 분석 결과가 상당 부분 수렴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될 경우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향상된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Abram et al., 2020; Gillies et al., 2022, Towler et al., 2023). 이와 같은 기존 연구들은 질적 분석과 텍스트 마이닝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과의 수렴성을 검토하거나, 두 방법의 개념적 통합 가능성을 논의하는데 주로 초점을 두어 왔으며, 동일한 심층면담 자료에 두 분석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분석 결과를 직접 비교·대조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특히 CQR처럼 인간 연구자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 질적 분석 결과와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도출된 언어적 패턴을 동일 자료원에서 체계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각 방법이 포착하는 경험의 층위와 정보의 성격을 검증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한편, 텍스트 마이닝은 반복되는 단어와 패턴을 도출해내는데 강점을 지니는 반면, 정서적 미묘함, 임상적 의미, 언어의 맥락 해석 면에서는 한계가 있고, 단어 빈도와 패턴만으로는 경험의 깊이를 충분히 설명하기 힘들다(Steinbrenner et al., 2025). 즉, 텍스트 마이닝은 ‘무엇이 반복되는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지만, ‘왜 그러한가’와 ‘그것이 가지는 임상적 의미’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인간 연구자의 영역이다.

따라서 상담경험을 심층적이면서도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기반 질적 분석(CQR)과 텍스트 마이닝을 결합한 혼합적 접근이 유용할 수 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정서적 취약성, 관계적 고립, 생활 적응상의 어려움, 상담 진입 방식, 보호종료 이후의 시간 흐름 등이 이들의 심리상담 경험에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동일한 면담자료를 기반으로 한 CQR과 텍스트 마이닝의 비교 분석은 이들의 상담 경험을 보다 다층적으로 조망하는 데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비교 연구는 향후 유사한 심리상담 연구에서 질적분석과 텍스트 마이닝을 함께 활용하는 다분석 접근(multimethod)의 장점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심리상담 분야에서 동일한 면담자료를 대상으로 인간 기반 질적 분석과 기

계 기반 텍스트 분석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매우 드물며, 국외에서도 제한적으로 시도되어 왔다. 이에 본 접근은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동일한 심층면담 자료에 대해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하고, 기존 분석 및 출판된 합의적 질적 연구(CQR)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상담 경험을 분석하는 통합적 접근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상담 경험을 이해하는데 있어, 첫째, CQR과 텍스트마이닝은 어떤 공통적 주제와 차별적 발견을 보이는가? 둘째, 두 방법의 통합적 활용은 어떻게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손수민 외(2024)가 수행한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상담 경험에 대한 CQR연구와 동일한 심층면담 전사본을 활용하였다. 참여자들에게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후속 연구 가능성 및 자료 활용에 대한 동의를 재차 받아, 심층면담 자료를 분석하였다. 참여자는 (사)한국국제기아대책 기구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제공하는 상담지원 사업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 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10명이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 일반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내용
인구학적 특성	연령	만 22-29세
	성별	남성 3명 / 여성 7명
보호 경험	보호유형	가정위탁 8명 / 그룹홈 2명
	보호종료 후 경과기간	2년 이내 4명 / 3~4년 3명 / 5년 이상 3명
상담 경험	보호종료 후 상담 경험	처음 경험 7명 / 1~2회 경험 3명
	참여 상담 회기 수	5회기 3명 / 8회기 1명 / 10회기 6명
심층면담	면담 방식	2명의 연구진과 참여자 1명의 1시간 30분 심층면담

본 연구에서는 전체 면담 전사본에서 면담자의 발화를 제거하고, 참여자의 발화만을 추출하여 42,094개 단어의 단일 텍스트 파일로 구성하였다. 이는 텍스트 마이닝 분석에서 면담자 문장의 간섭을 제거하고, 자연어 기반 의미 패턴을 정확히 추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참고로, CQR 자료

분석에서 활용된 심층면담 자료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수집된 자료로, 상담내용이나 익명성이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은 제외되고 분석되었다.

또한 CQR 분석에서 심층 면담의 분위기나 참여자의 비언어적 요소 등을 파악하기 위해 포함했던 <끝음을 올리며>, <음>, <... 5초 침묵>과 같은 특수 표기와 비언어적 반응은 텍스트 기반 분석에서는 의미적 정보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제거하여 전처리 효율을 높였다.

2.1.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Excel과 한글 분석에 강점이 있는 Textom24를 활용하여 다음 절차로 수행하였다. (1) 유사어 통합의 과정으로 ‘상담자분’, ‘상담사’, ‘선생님’, ‘상담선생님’은 모두 ‘상담자’로 통일하였으며, ‘보호종료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준비청년’으로 통합하였다. 이는 개념의 분산을 방지하고 분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 단순 반복되는 “네”, “맞아요”, “아”은 의미 분석 기여도가 낮다 판단하여 불용어 처리하여 삭제하였다. (3) 한국어 비정형 텍스트 처리에 적합한 Textom의 MeCab-IMC 분석기를 활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품사를 추출한 뒤, ‘이거’는 ‘상담’으로, ‘알고’, ‘싶었’은 ‘알고싶은’ 등 대명사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표현은 원문의 맥락을 확인하여 수정하였다. (4) 상담 경험을 묻는 면담 특성상 ‘상담’, ‘생각’, ‘애기’, ‘상담자’, ‘말씀’ 등 과도하게 빈번한 단어는 변별력이 낮아 해석 가치가 낮다고 판단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2. 분석방법

전처리가 완료된 자료는 Textom24기반의 LDA 알고리즘을 활용해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LDA생성 모델은 데이터에 나타난 토픽의 유사성에 따라 단어를 배치하고 반영하게 된다.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상담 경험에 나타난 언어적 경향성과 주제 구조를 탐색적으로 파악하고, 동일한 자료에 대해 수행된 CQR 분석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두 방법의 방법론적 상호보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자료를 기반으로 일반화 가능한 패턴을 도출하기보다는, 동일 자료 내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구조와 분석 결과의 해석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LDA 분석을 적용하였다.

먼저, 최적의 토픽 개수 선정을 위해 토픽 구성의 일관성 점수(Coherence score)를 산출하였다. 일관성 점수는 자료 안에서 단어 간 연결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Chang et al., 2009), 점수가 높을수록 구성된 단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토픽이 잘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홍이빈, 진미경, 2022). 본 연구에서는 토픽 개수를 3개부터 10개까지 단계적으로 변화시키며 분석했고,

토픽 수가 4개일 때 Coherence 값이 -4.42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LDAvis를 활용한 시각화 결과, 토픽 수 4개 조건에서 토픽 간 중첩 영역이 비교적 적고 각 토픽이 명확히 구분되는 양상을 보여 해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각 토픽에 가장 높은 확률로 할당된 상위 30개 단어를 검토하여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상담 경험과 관련된 의미 맥락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질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러한 정략적 지표와 정성적 검토를 종합하여 최종 토픽 수를 4개로 결정하였다. LDA파라미터는 선행연구에서 활용되는 설정을 참고하여(박귀화 외, 2021; 손혜선, 2024; 조준오, 2018), 알파값은 0.1, 베타값은 0.01로 설정하였고, 샘플링 반복 횟수는 1000회로 설정하여 모형의 안정적 수렴을 도모하였다.

한편 집단 간 언어 패턴 비교 분석을 위해 동일한 참여자 자료를 기준으로 (1) 보호종료 경과 기간(2년 이내, 3~4년, 5년 이상), (2) 상담 만족도(만족, 불만족) 집단을 구분하여 TF-IDF단어 가중치를 비교하였다. LDA가 자료 전반의 잠재적 주제 구조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둔다면, TF-IDF는 집단별로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단어 사용을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분석 방법을 병행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상담 경험에 나타난 언어 패턴의 공통성과 차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자립준비청년 10명의 상담경험 면담 자료를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전체 데이터의 토픽 구조와 더불어 보호종료 이후 경과 기간별, 상담 만족도별 언어 패턴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동일 면담자료를 활용한 손수민 외(2024)의 CQR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 결과 간 유사성과 차별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토픽모델링에서 도출된 주요 토픽

[표 2]는 전체 참여자 10명의 LDA토픽모델링 분석 결과이다. 토픽명은 유사도 점수가 높은 핵심어를 기반으로 그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여 부여하였고, 이렇게 도출된 토픽명은 다음과 같다. ① 정서적 어려움과 현실적 부담 속에서 상담을 요청하게 된 배경, ② 관계, 생활 스트레스와 이를 상담에서 표현하고 대처해가는 과정, ③ 상담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자기 이해의 경험, ④ 지원받은 상담의 구조적 조건과 그 안에서 경험된 정서적 지지 및 한계.

표 2 LDA 분석을 통한 토픽 산출 결과

토픽명	키워드
1. 정서적 어려움과 현실적 부담 속에서 상담을 요청하게 된 배경	마음(0.015), 문제(0.01), 고민(0.009), 힘든(0.009), 일(0.009), 모르는(0.009), 도움(0.008), 좋은(0.008), 5회기(0.008), 상황(0.008), 회기(0.008), 진행(0.008), 처음(0.007), 심리검사(0.007), 친구(0.007), 나(0.007), 시간(0.007), 해결(0.006), 자비(0.006), 많은(0.006), 이해(0.006), 10회기(0.006), 현실(0.005), 경험(0.005), 직장(0.005), 지원(0.005), 아쉬운(0.005), 신청(0.004), 혼자(0.004), 상처(0.004)
2. 관계, 생활 스트레스와 이를 상담에서 표현하고 대처해가는 과정	감정(0.014), 도움(0.012), 마음(0.012), 처음(0.011), 좋은(0.01), 없는(0.009), 많은(0.009), 고민(0.008), 힘든(0.008), 상황(0.008), 시간(0.008), 느낌(0.008), 부모(0.008), 하나(0.007), 심리(0.007), 친구(0.006), 문제(0.006), 일(0.006), 연장(0.006), 5회기(0.006), 이해(0.006), 경험(0.006), 진행(0.005), 필요(0.005), 회사(0.005), 해결(0.005), 감정표현(0.005), 만약(0.005), 피드백(0.005), 정도(0.005)
3. 상담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자기 이해의 경험	문제(0.012), 마음(0.011), 고민(0.01), 대화(0.009), 5회기(0.009), 느낌(0.009), 친구(0.008), 없는(0.008), 자체(0.006), 경험(0.006), 자신(0.006), 처음(0.006), 진행(0.006), 정도(0.006), 좋은(0.005), 전문(0.005), 성향(0.005), 설명(0.005), 시간(0.005), 10회기(0.005), 다른(0.005), 상태(0.005), 나(0.005), 심리검사(0.005), 정보(0.005), 기억(0.005), 이해(0.005), 만약(0.005), 지원(0.005), 반응(0.005)
4. 지원받은 상담의 구조적 조건과 그 안에서 경험된 정서적 지지 및 한계	도움(0.017), 고민(0.013), 시간(0.013), 문제(0.013), 처음(0.012), 진행(0.01), 해결(0.01), 느낌(0.009), 5회기(0.008), 상담센터(0.008), 상태(0.008), 공감(0.007), 마음(0.007), 10회기(0.007), 혼자(0.006), 일(0.006), 부모(0.006), 이번(0.006), 대화(0.005), 좋은(0.005), 많은(0.005), 감정표현(0.005), 감정(0.005), 3회기(0.004), 신청(0.004), 전문가(0.004), 모르는(0.004), 2회기(0.004), 1회기(0.004), 영향(0.004)

3.1.1. 토픽 1. 정서적 어려움과 현실적 부담 속에서 상담을 요청하게 된 배경

첫 번째 토픽은 ‘마음’, ‘힘든’, ‘고민’, ‘상황’, ‘문제’, ‘현실’, ‘직장’, ‘지원’, ‘신청’, ‘자비’ 등의 단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 토픽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상담을 신청하게 된 배경에 정서적 어려움과 더불어 현실적·환경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특히 ‘힘든’, ‘고민’, ‘마음’은 지속적인 정서적 부담감을 나타내며, ‘직장’, ‘현실’, ‘지원’, ‘자비’와 같은 단어는 상담 접근성, 경제적 부담, 서비스 조건 등이 경험의 중요한 일부임을 시사한다. 이는 자립준비청년의 상담 진입 경험이 단순히 심리적 어려움뿐 아니라, 구조적인 제약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3.1.2. 토픽 2. 관계·생활 스트레스와 이를 상담에서 표현하고 대처해가는 과정

두 번째 토픽은 ‘감정’, ‘부모’, ‘친구’, ‘회사’, ‘상황’, ‘문제’, ‘감정표현’, ‘도움’, ‘해결’, ‘피드백’ 등이 핵심어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자들이 일상적 관계(부모, 친구, 동료)와 사회적 요구(직장, 학교, 시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상담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상담을 통해 감정 표현, 감정 명명, 피드백을 통한 조망 등으로 이어지며, 참여자들은 이를 ‘도움’, ‘해결’ 경험으로 인식하였다. 즉, 상담은 이들의 관계적·생활적 스트레스와 정서적 반응을

다루고,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대처를 돕는 공간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3.1.3. 토픽 3. 상담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자기 이해의 경험

세 번째 토픽은 ‘대화’, ‘설명’, ‘반응’, ‘전문’, ‘자신’, ‘기억’, ‘이해’ 등의 단어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상담자와의 상호작용(설명, 반응)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으며, 자신의 감정이나 과거 경험을 다시 이해하는 과정을 보고하였다. 또한, ‘전문’, ‘설명’과 같은 단어는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과 요구의 맥락을 보여준다. 이 토픽은 상담 관계가 자기 이해의 촉진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1.4. 토픽 4. 지원받은 상담의 구조적 조건과 그 안에서 경험된 정서적 지지 및 한계

네 번째 토픽은 ‘1회기’, ‘5회기’, ‘10회기’와 같은 구체적인 회기 수, ‘상담센터’, ‘신청’, ‘전문가’ 등 상담 제공 구조를 나타내는 단어가 높은 비중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텍스트 마이닝 분석에서 상담의 구조적 요소가 하나의 독립적인 의미 축으로 드러났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도움’, ‘공감’, ‘혼자’, ‘모르는’ 과 같은 단어는 상담 안에서 경험한 정서적 지지를 반영하면서도, 이러한 지지 경험이 제한된 회기 수와 지원방식이라는 구조적 조건과 함께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현실적 한계 인식과 맞물려 있음을 시사한다. 즉, 참여자들은 상담을 통해 정서적 위안을 경험했지만, 지원받은 상담의 회기를 충분히 더 이어가기 어렵거나,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기에는 구조적으로 제약이 존재한다는 인식 또한 함께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 토픽은 지원받은 상담의 제도적·환경적 조건이 참여자의 경험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3.2.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와 CQR 분석 결과 간 비교

[표 3]는 토픽모델링 분석과 CQR 분석을 통해 도출된 영역과 범주를 매치한 결과이다. 토픽 모델링과 CQR 결과 간의 비교 결과, 두 방법론은 자립준비청년의 상담 경험을 포착하는데 전반적으로 높은 유사성을 보이면서도 각 방법론의 고유한 특성에 따른 차별적 결과를 나타냈다.

3.2.1. 공통적으로 포착된 핵심 심리상담 경험

먼저, 상담 진입 동기의 복잡성이 두 분석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CQR 분석의 영역 1 ‘상담을 신청하게 된 계기’와 토픽 1의 ‘정서적 어려움과 현실적 부담 속에서 상담을 요청하게 된 배경’은 모두 자립준비청년이 정서적 고통과 현실적 제약을 동시에 경험하며 상담을 찾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마음’, ‘힘든’, ‘고민’과 같은 정서 표현과 ‘직장’, ‘현실’과 같은 현실적 맥락이 함께

나타난 점은 이들의 상담 동기가 단일하지 않고 다층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관계적 어려움이 상담의 주요 작업 영역 중 하나임이 확인되었다. CQR분석의 영역 2의 범주 ‘가족 또는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사회적 상황에서 대처의 어려움, 생존을 위한 현실적 고민이 중심이 되는 자립 후의 삶’, ‘어려움을 공유하고 의논할 어른의 부재’ 범주와 토픽 2의 ‘관계·생활 스트레스와 이를 상담에서 표현하고 대처해가는 과정’은 모두 부모,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 문제가 심리상담을 찾게 된 어려움이자 핵심적으로 다뤄진 주제 중 하나였음을 보여준다. 이에 더해, 두 분석 모두에서 ‘감정표현’, ‘피드백’, ‘해결’ 등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상담이 단순한 정서 표출을 넘어 자신과 관계 패턴의 이해와 변화를 촉진했음을 시사한다.

상담자와의 치료적 관계가 변화의 핵심 기제로 작용한 점도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CQR분석의 영역3 ‘상담자와의 관계 경험’, 영역5 ‘상담 후의 변화’와 토픽3의 ‘상담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자기 이해의 경험’은 공통적으로 상담자와의 대화, 반응, 공감적 이해가 자기 성장을 촉진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문’, ‘설명’, ‘이해’와 같은 키워드는 상담자의 전문성이 신뢰 형성과 치료적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나타낸다.

3.2.2. 차별적으로 포착된 핵심 심리상담 경험

참여자들의 언어 사용 패턴의 특징이 텍스트 마이닝에서 더 명확히 드러났다. 토픽 모델링은 ‘5회기’, ‘10회기’, ‘상담센터’와 같은 상담의 구조를 칭하는 용어들이 참여자들의 발화에서 높은 빈도로 등장함을 포착하여 이를 토픽으로 도출하였지만, CQR 분석 결과에는 상담의 구조가 독립적인 영역이나 범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제한된 회기 수에 대한 반복적 언급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상담의 지속성, 회기의 수가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실제 참여자들의 의식 속에서는 상담의 구조적 조건이 경험의 중요한 구성 요소였으나, 참여자들의 경험을 범주화하는 CQR 분석에서는 상담의 구조가 독립적 영역보다는 맥락적 정보로 처리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CQR은 심리상담 경험의 과정적 측면을 더 깊이 있게 포착하였는데, 일례로 CQR 분석의 5영역 ‘상담 후의 변화’ 영역에서는 긍정적 사고의 증가와 자기 이해의 변화, 일상에서의 대처 및 행동 변화 등 보다 세밀한 과정이 기술되었다. 반면, 토픽 모델링은 이러한 상담 과정의 단계나 흐름보다는 어떤 말을 반복적으로 함께 사용했는가를 기준으로 형성된 주제를 보여주었다. 이는 두 분석 모두 영역과 토픽에 대한 명명을 할 때는 인간 연구자가 이를 의미화하나, 핵심주제의 기반이 되는 기초자료를 도출하는 과정에서의 차이를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이처럼 두 방법론의 결합은 자립준비청년 상담 경험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텍스트 마이닝이 분석한 객관적·구조적 패턴과 CQR이 분석한 맥락적·해석적 깊이는 상호 검증과 보완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토픽 모델링을 통해 추출된 상담의 구조적 조건(회기 수, 접근성, 비용)이 단순한 외적 혹은 배경적 요인이 아닌 참여자들의 주관적 경험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일 수 있다는 발견이다. CQR에서는 영역 6에서 ‘다양한 지원과 연계의 통합적 접근을 기대’로 해석되었던 내용이 토픽모델링에서는 보다 구체화되어 도출되었다. 토픽 4에서 ‘1회기’, ‘5회기’, ‘10회기’가 ‘도움’, ‘공감’과 함께 묶인 것은 심리상담의 구조적 제약과 정서적 경험이 분리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특히, 자비가 아닌 지원을 받아 5회기 혹은 10회기 심리상담을 무료로 진행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있어 회기 수 제약은 단순히 단기상담에 대한 아쉬움을 넘어 본인의 경제적, 심리정서적 상황 그리고 지지차원의 부재 혹은 제약이라는 현실을 상기하는 주요 경험적 맥락이었을 것이다.

표 3 토픽모델링과 CQR영역

토픽명	토픽과 CQR 영역 및 범주와의 매칭
토픽 1. 정서적 어려움과 현실적 부담 속에서 상담을 요청하게 된 배경	영역1. 상담을 신청하게 된 계기 -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느낌 - 어린 시절의 역경, 자립 후 막막한 홀로서기와 같은 보호 및 자립과 관련된 어려움을 느낌 - 자기 이해를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낌 - 정서적 돌봄, 진단, 조언 및 해결책 제공과 같은 상담 개입에 대한 기대를 가짐
토픽 2. 관계, 생활 스트레스와 이를 상담에서 표현하고 대처해가는 과정	영역2. 자립준비청년 내담자의 다양한 특성 - 가족 또는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 사회적 상황에서 대처의 어려움 -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고민이 중심이 되는 자립 후의 삶 - 어려움을 공유하고 의논할 어른의 부재 영역5. 상담 후의 변화 - 긍정적인 사고의 증가와 편향된 사고의 재정립을 경험함 - 대처능력과 자기 조절력의 향상으로 인한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경험함
토픽 3. 상담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자기 이해의 경험	영역3. 상담자와의 관계 경험 - 공감적이고 수용적인 상담자와 적절한 상담기법을 활용한 개입을 긍정적으로 경험함 - 자립준비청년 내담자를 대하는 상담자의 준비도, 역량, 태도에 따라 달라졌던 상담경험 영역5. 상담 후의 변화 - 자기이해 수준의 증진과 자신을 바라보는 양상의 변화를 경험함 - 부정적 감정의 해소로 인한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함
토픽 4. 지원받은 상담의 구조적 조건과 그 안에서 경험된 정서적 지지 및 한계	영역 6. 자립준비청년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제안 -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 및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과의 연계와 같은 통합적 접근을 기대 - 상담자의 상담역량 및 다문화적 감수성의 강화

3.3. 그룹 간 TF-IDF 분석 결과

LDA토픽모델링 분석 결과와 CQR의 영역 및 범주 분석 결과를 비교하는 것에 더해, CQR

분석에서는 사례 수가 제한되어 시도하지 않았던 보호 종료 후 기간별 그리고 상담만족도 별 단어 사용 패턴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3.3.1. 차별적으로 포착된 핵심 심리상담 경험

보호종료 후 경과 기간에 따라 단어 사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워드 클라우드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가독성 및 핵심 단어의 의미 해석에 집중하기 위해, 전체 단어 목록이 아닌 TF-IDF 가중치 상위 25개의 단어목록을 [표 4]에 제시하였다.

우선 2년 이내 집단에서는 ‘도움’, ‘마음’, ‘감정’, ‘부모’, ‘혼자’, ‘해결’, ‘감정표현’, ‘힘든’, ‘기억’, ‘상처’ 등의 단어가 상대적으로 높은 TF-IDF 값을 보이며 빈번하게 언급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정서적 혼란과 외로움(혼자, 부모, 마음, 감정표현, 상처), 초기 적응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시도로서의 심리상담(처음, 신청, 고민, 해결, 요청), 정서 지지에 대한 상담 경험(마음, 좋은, 이해, 공감) 등이 상대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양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보호종료 직후에 자립준비청년의 정서적 기반이 취약할 수 있고, 관계 단절과 고립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심리상담에서 주되게 다루어 졌음을 의미한다.

보호종료 후 3~4년 집단에서는 ‘문제’, ‘시간’, ‘고민’, ‘상황’, ‘학교’, ‘현실’, ‘심리검사’, ‘해결책’, ‘5회기’, ‘자비’ 등 현실 적응과 문제해결 중심의 단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생활 및 현실 적응과 관련된 고민(문제, 상황, 시간, 고민)이 보다 전면화되고, 동시에 자기 이해 및 심리적 고찰에 대한 관심(심리검사, 이해, 공감)이 함께 언급되는 양상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보다 현실적인 고민과 해결이 필요한 시기의 특성상 상담에 대한 구체적 요구(해결책, 연장, 자비, 5회기)의 키워드도 함께 언급되는 양상이었다. 이는 보호종료 후 2년 이내의 집단에서 나타난 ‘정서 중심’의 주제가 3~4년 집단에서는 구체화된 ‘문제 해결 중심’으로 관심사와 상담내용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보호종료 후 5년 이상 집단에서는 ‘회사’, ‘고민’, ‘친구’, ‘대화’, ‘10회기’, ‘전문’, ‘환경’, ‘행동’ 등 사회적 기능과 관계 중심의 단어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보였다. 이 집단에서는 직장 및 대인관계와 같은 사회적 역할과 관계 경험(회사, 친구, 대화, 환경)이 자주 언급되었으며, ‘전문’, ‘전문가’, ‘상담센터’, ‘지원’과 같이 전문적 상담 지원에 대한 언급도 함께 관찰되었다. 이에 보호종료 후 5년 이상 집단에서는 자립 초기의 정서적 혼란보다는 사회적 적응과 관계 유지에 대한 어려움과 그에 대한 대처가 상담의 주요 동기이자 상담의 주요 내용이 될 가능성이 시사된다.

요약하면, 자립준비청년의 상담 경험에서 보호종료 후 2년 이내는 정서 안정, 3~4년은 현실적 문제 대처, 5년 이상은 사회적 기능 및 관계 적응 및 대처 단계로 심리상담 경험의 구조가 변화

표 5 상담 만족도별 TF-IDF 단어목록

만족						불만족					
순위	단어	TF-IDF	순위	단어	TF-IDF	순위	단어	TF-IDF	순위	단어	TF-IDF
1	문제	110.954	14	회사	68.994	1	고민	91.458	14	나	57.361
2	도움	109.737	15	고민	68.930	2	시간	90.276	15	진행	57.259
3	친구	100.712	16	10회기	66.353	3	마음	77.219	16	느낌	56.049
4	마음	93.887	17	일	65.230	4	부모	72.140	17	집	53.480
5	처음	89.430	18	회기	64.076	5	힘든	69.15	18	처음	52.146
6	5회기	80.742	19	느낌	63.402	6	문제	69.141	19	관계	49.507
7	진행	79.947	20	경험	62.259	7	상황	68.666	20	주제	49.507
8	많은	78.855	21	심리	61.674	8	일	66.214	21	3회기	49.237
9	이해	74.335	22	하나	61.406	9	5회기	63.322	22	설명	49.215
10	해결	72.893	23	감정	61.167	10	대화	62.238	23	정도	48.093
11	혼자	72.085	24	모르는	61.167	11	심리검사	58.574	24	성격	46.320
12	좋은	70.837	25	상태	59.951	12	감정	58.451	25	설명	49.215
13	감정표현	70.449				13	좋은	58.384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상담 경험을 보다 다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동일한 면담 자료에 대해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선행 CQR 분석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기계 기반 분석의 타당성과 두 분석 방법의 상호보완적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두 방법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었으나, 각 방법론이 포착하는 의미의 초점에서는 차이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 기반 질적 분석과 텍스트 기반 기계 분석을 통합해 활용하는 접근이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상담 경험을 보다 입체적·다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질적 연구 결과에 기계분석 결과를 보완적으로 결합할 때 해석적 타당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Imel et al., 2015; Howes et al., 2014; Steinbrenner et al., 2025).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텍스트 마이닝과 CQR 분석이라는 두 방법 모두 자립준비청년의 상담경험에서 공통된 핵심 구조와 주제를 포착하였다. (1) 정서적 어려움과 현실적 부담을 배경으로 상담에 참여하고, (2) 관계 및 생활 스트레스와 감정 경험을 상담에서 다루며, (3) 상담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

이해가 증진되고, (4) 상담 과정에서 정서적 지지를 경험한다는 흐름이다. 이러한 높은 수렴은 두 분석방법이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상담 경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주제를 일관되게 포착했다는 점에서 분석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근거가 된다. 특히 정서적 취약성, 관계·생활 맥락, 상담자와의 관계, 자기 이해는 두 분석방법 모두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나타난 공통 요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상담 경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이정우, 이소연, 2024). 또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 ‘마음’, ‘감정’, ‘느낌’, ‘도움’, ‘혼자’, ‘공감’ 등의 단어가 모든 토픽에서 매우 높은 확률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상담 경험이 정서 중심적이었음을 CQR보다 더 강하게 정량적으로 드러내는 결과이다. 이는 정서조절과 감정표현의 필요성, 상담 관계에서 제공되는 정서적 지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실제 심리상담이 이러한 정서적 요소를 중심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둘째, 텍스트 마이닝에서만 독립적으로 도출된 ‘상담의 구조적 조건(회기 수, 상담센터, 지원 방식, 전문가)’은 CQR 분석 결과와 구별되는 핵심 발견이다. 이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있어 상담의 제도적·환경적 조건이 경험의 배경이 아닌 핵심 경험 그 자체라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 면담 전반에서 1, 2, 3, 5, 10회기와 같은 회기 수, 지원, 신청, 센터, 전문가 등의 단어가 정서 경험이나 상담 내용과 동일한 비중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이는 이번 면담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이 경험한 심리상담이 ‘무료로 제공된 서비스’, ‘제한된 회기 수’ 등의 상담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는 구조적 요소 자체가 상담 경험의 핵심 일부이자 다양성과 복잡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CQR분석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측면이 주로 맥락 정보로 활용되었으나, 텍스트 마이닝 분석에서는 참여자의 언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패턴을 바탕으로 이를 독립적인 주제로 식별해냈다. 이는 기계 기반 분석이 자연 언어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구조적 요소를 더 민감하게 포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상담지원정책의 한계와 조정 필요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물론, 본 연구는 참여자 10명의 심층면담 자료를 활용한 탐색적 연구이기 때문에 단순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정책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결과는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상담 경험을 이해하는데 있어 상담의 구조적 조건이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2024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에게 8회기 내외의 무료상담을 제공하지만(보건복지부, 2025), 회기 수가 제한되어 있고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 및 제출해야 하는 행정 절차의 부담이 존재한다. 그 외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0회기 내외의 제한된 회기의 무료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및 경제적 자립 여건과 심리사회적 어려움의 수

준을 고려할 때, 8~10회기만으로는 충분한 개입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제안된다(이정우 외, 2023; 이정우, 이소연 2023; 홍혜교, 2017).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상담의 구조는 자립준비청년 내담자의 경험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주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이보나, 정익중, 2023). 따라서 상담 회기 수를 보호종료 시기 또는 개인별 필요도에 따라 조정하거나, 사례관리 기반의 맞춤형 회기 구성이 필요하다는 실천적 함의가 제안된다. 특히 현행 5~10회기 내외의 무료 상담 지원 정책은 초기 정서적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개인별 상담 필요도에 따른 추가 회기 지원의 유연성 부족은 참여자의 상담 지속성과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대규모 표본을 활용한 연구, 상담 회기 수에 따른 효과성 비교 연구 등을 통해 상담의 구조적 조건이 상담 지속성과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추가적 근거가 축적될 때, 개별 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회기 구성을 고려하는 정책적·실천적 제안 역시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CQR분석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호종료 후 경과 기간과 상담 만족도 수준에 따른 집단별 TF-IDF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보호종료 이후의 경과 시기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의 상담 경험의 초점과 언어적 표현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보호종료 2년 이내 집단에서는 ‘정서적 혼란’, ‘상처’, ‘처음’, ‘신청’, ‘지원’ 등의 단어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보호 종료 직후의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제도적 의존도가 큰 시기를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장정은, 전종설, 2018). 보호종료 후 3~4년 집단에서는 ‘일’, ‘시간’, ‘비용’, ‘심리검사’, ‘이해’, ‘해결책’ 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초기 정서적 안정 이후 현실적 자립 과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단계를 짐작하게 한다(양은별 외, 2017; 이태연 외, 2019). 실제로 이 시기는 선행 연구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고 자살 생각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위기의 시기로 보고되기도 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보호종료 후 5년 이상 집단에서는 ‘관계’, ‘직장’, ‘사회적 기능’, ‘전문가’, ‘10회기’가 주요 단어로 등장하였으며, 이는 성인기 사회적 역할과 기능 확장 단계에서 나타나는 경험적 초점을 반영한다(이정우, 이소연, 2023). 이와 같은 결과는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정서적 혼란에서 현실 적응, 그리고 사회적 기능 확장으로 경험의 중심이 이동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상담 요구와 경험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CQR 분석은 표본 수의 제한과 공통 경험 중심의 분석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보호종료 후 시간적 변화 가능성을 일부 진술 수준에서 포착하는 데 그쳤으나, 텍스트 마이닝 분석은 집단별 언어 패턴 차이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자립준비청년 상담에서 보호 종료 후 경과 시기별로 상담 내용, 개입의 강조점, 회기 구성 등을 차별화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상담 만족도에 따른 집단별 TF-IDF 분석에서도 만족 집단과 불만족 집단의 언어적 특징이

다르게 나타났다. 만족 집단은 ‘도움’, ‘이해’, ‘감정표현’, ‘공감’, ‘친구’, ‘좋은’, ‘진행’ 등 정서적 지지 경험과 문제 해결 과정, 긍정적 상호작용을 언급한 반면, 불만족 집단은 ‘부모’, ‘일’, ‘시간’, ‘상황’, ‘설명’, ‘전문’ 등 해결되지 않은 외부 스트레스, 상담정보 및 전문성에 대한 기대를 주로 언급하였다. 이는 상담 만족도가 정서적 지지, 상담자의 반응성, 상담 과정의 구조화·명확성, 상담자의 전문성 지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불만족 집단의 경우 상담 관련 정보 및 전문성에 대한 욕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데, 본 면담에 참여한 7명이 이번 상담이 생애 첫 심리상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기 상담관계 형성 단계에서 상담 과정 안내와 상담 구조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결과이다(최해연, 백지성, 2024).

종합하면, 텍스트 마이닝과 CQR분석의 종합적 고려는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상담 경험을 맥락적 깊이와 패턴 기반의 규칙성이라는 두 차원에서 동시에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CQR은 의미 단위와 맥락의 흐름을 기반으로 경험의 심층적 의미 구조를 드러내는 데 강점이 있으며, 텍스트 마이닝은 발화 빈도와 언어적 규칙성, 집단별 차이를 정량적으로 식별하여 연구자 해석이 놓칠 수 있는 구조적·집단적 특성을 보완한다. 이는 동일 자료를 다른 연구자가 분석했을 때 도출되는 해석의 다양성과 유사하게, 인간 연구자 간 해석의 다양성뿐 아니라 인간 연구자와 기계 분석 간 해석의 다양성과 상호보완성이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참여자의 목소리와 언어표현이 중요한 심리상담 영역 연구에서는 이러한 혼합적 접근이 가지는 활용 가능성이 높다. 또한 더 나아가 질적 분석과 기계 분석의 통합적 적용은 질적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삼각검증(triangulation)의 한 방법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텍스트 마이닝에 활용된 참여자 면담 자료의 수가 10명으로 제한적이므로, 대규모 텍스트가 투입되는 경우 다른 토픽이 도출되거나 본 연구에서 파악되지 않은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다른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상담 경험 전반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대규모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동일한 면담 자료에 대해 CQR 분석과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병행·비교함으로써 두 분석 방법의 수렴성과 차별적 기여를 탐색하고자 한 탐색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접근은 향후 보다 대규모 표본을 활용한 후속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기초 자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선행 CQR 분석 결과와만 비교하였기 때문에, 다른 질적 분석방법을 적용할 경우 도출될 수 있는 주제 구조나 경험 해석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질적방법은 분석 과정의 이론적 기반과 접근 방식에 따라 도출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여러 질적 연구방법론(예: 근거이론, 내러티브 분석, 주제분석)과 텍스트 마이닝을 비교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기계 기반 분석의 타당성과 적용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텍스트 마이닝과 TF-IDF 결과가 기계에 의해 도출되더라도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연구자의 해석 편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전문가 검토 절차나 다수 연구자의 교차 검토(cross-validation)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동일한 면담 자료에 대해 CQR과 텍스트 마이닝을 비교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상담 경험이 정서적 어려움·관계·상담자 상호작용·정서적 지지 등 핵심 구조에서 높은 수렴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텍스트 마이닝은 상담의 구조적 조건과 집단별 언어 패턴을 독립적으로 식별함으로써 CQR이 포착하지 못한 경험 차원을 보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 기반 질적 분석과 기계 기반 텍스트 분석이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상담연구에서 두 접근의 통합 활용 가능성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권봉목, 박희정, 이정랑 (2021).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12(5), 2133-2144. DOI : 10.22143/HSS21.12.5.150
- 김지선 (2021). **가정의보호 종료 청소년의 외상후 성장과 자립**.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하선, 조남옥, 이운주 (2023).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상담과정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 언어변화.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20), 801-818. DOI:10.22251/jlcci.2023.23.20.801
- 박귀화, 이은영, 윤소정 (2021).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상담성과 연구동향 분석 - '상담학연구' 학술지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9(11), 517-523. DOI : 10.14400/JDC.2021.19.11.517
- 박세린, 김양곤, 남기범, 이영선 (2024). 챗봇상담(ChatGPT)의 특성 연구 : 채팅상담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31(8), 89-117. DOI : 10.21509/KJYS.2024.08.31.8.89
- 박해선, 김현옥, 김소형 (2023). 자립준비에 관한 두 개의 목소리 - 당사자와 실천가의 진술 비교 -. **한국사회복지학**, 75(4), 13-47. DOI : 10.20970/kasw.2023.75.4.001
- 보건복지부 (2021, 07. 13.).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25). **2025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운영 지침**. <https://www.socialservic->

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71

손수민, 이정우, 이예인, 박현숙, 이소연 (2024).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상담 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25(2), 71-99. DOI : 10.15703/kjc.25.2.202404.71

손혜선 (2024). **텍스트마이닝 기반 토픽모델링을 통한 집단상담 연구동향 분석**.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재은, 최광현 (2024). 애착외상을 경험한 자립준비청년의 인형 가족세우기 치료 사례연구. **인형치료연구**, 10(2), 49-67.

양은별, 김지혜, 정익중, 이정희 (2017). 진학이 아닌 취업을 선택한 시설퇴소청소년의 경험. **청소년복지연구**, 19(4), 133-158. DOI : 10.19034/KAYW.2017.19.4.06

이보나, 정익중 (2023). 시설 퇴소 청년의 자기공개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사회복지연구**, 54(2), 91-117. DOI : 10.16999/kasws.2023.54.2.91

이정우, 손수민, 이예인, 박현숙, 이소연 (2023). 자립준비청년 대상 심리상담에서의 상담자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31(2), 153-176. DOI : 10.35151/kyci.2023.31.2.007

이정우, 이소연 (2023). 자립준비청년 내담자의 심리상담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청소년연구**, 34(3), 129-158. DOI : 10.14816/sky.2023.34.3.129

이정애, 정익중 (2020). 가정외보호 퇴소청소년의 건강관련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아동복지학**, 69(1), 81-109. DOI: 10.24300/jkscw.2020.3.69.1.81

이태연, 최은숙, 이세정 (2019).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청소년들의 생활경험과 자립 간의 관계에 대한 사례연구. **청소년학연구**, 26(4), 293-322. DOI : 10.21509/KJYS.2019.04.26.4.293

장정은, 전종설 (2018). 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초기 자립경험. **청소년복지연구**, 20(2), 95-125. DOI : 10.19034/KAYW.2018.20.2.05

조준오 (2018). 텍스트마이닝과 데이터마이닝을 통한 유아 미디어 중독 예측 모형 개발. **인문사회** 21, 12(1), 3203-3218. DOI : 10.22143/HSS21.12.1.227

최해연, 백지성 (2024). 자립준비청년 상담 효과에 관한 혼합연구. **한국심리학회지:일반**. 43(3), 173-197. DOI : 10.22257/kjp.2024.9.43.3.17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2023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실태조사**.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5723>

홍이빈, 진미경 (2022). 놀이치료 인식에 대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한국놀이치료학회지**, 25(4), 331-351. DOI : 10.17641/KAPT.25.4.4

홍혜교 (2017). 시설보호아동의 상담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아동부모학회지**, 3(1), 5-28. DOI : 10.23079/2017.03.01-01

- 황종인, 김장희 (2021).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청소년의 자립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교류분 석상담연구*, 11(1), 47-67. DOI : 10.35476/taca.2021.11.1.47
- Abram, M. D., Mancini, K. T., & Parker, R. D. (2020). Methods to integrat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nto qualitativ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19, 1-6. DOI : 10.1177/1609406920984608.
- Atkins, D. C., Rubin, T. N., Steyvers, M., Doeden, M. A., Baucom, B. R., & Christensen, A. (2012). Topic models: A novel method for modeling couple and family text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6(5), 816-827. DOI : 10.1037/a0029607
-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993-1022.
- Chang, J., Gerrish, S., Wang, C., Boyd-Graber, J., & Blei, D. (2009). Reading tea leaves: How humans interpret topic models.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Proceedings Systems*, 22, 288-296.
- Gillies, M., Murthy, D., Brenton, H., & Olaniyan, R. (2022). *Theme and Topic : How qualitative research and topic modeling can be brought together*. *arXiv*. DOI : 10.48550/arXiv.2210.00707
- Goldberg, S. B., Flemotomos, N., Martinez, V. R., Tanana, M. J., Kuo, P. B., Pace, B. T., Villatte, J. L., Georgiou, P. G., Van Epps, J., Imel, Z. E., Narayanan, S. S., & Atkins, D. C. (2020). Machine learning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n psychotherapy research: Alliance as example use cas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7(4), 438-448. DOI : 10.1037/cou0000382
- Hill, C. E. (2012). *Introduction to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In C. E. Hill (Ed.),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pp.3-20).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owes, C., Purver, M., & McCabe, R. (2014). Linguistic indicators of severity and progress in online text-based therapy for depression. In *Proceedings of the 2nd Workshop on Computational Linguistics and Clinical Psychology: From Linguistic Signal to Clinical Reality*(pp.7-16).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DOI : 10.3115/v1/w14-3202
- Imel, Z., E., Steyvers, M., & Atkins, D. C. (2015). Computational psychotherapy research: Scaling up the evaluation of patient-provider interactions. *Psychotherapy*, 52(1), 19-30. DOI : 10.1037/a0036841
- Ramos, J. (2003). Using TF-IDF to determine word relevance in document queries. *In proceedings of the first instruc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242, 133-142.

- Steinbrenner, T., Lalk, C., Targan, K., Schaffrath, J., Eberhardt, S., Haberkamp, A., Lutz, W., & Rubel, J. (2025). Explaining anxiety prediction in psychotherapy transcripts: The role of patient linguistic features and theoretical construc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194*, 1–10. DOI : 10.1016/j.brat.2025.104857
- Tanana, M., Hallgren, K. A., Imel, Z. E., Atkins, D. C., & Srikumar, V. (2016). A comparison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methods for automated coding of motivational interviewing.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65*, 43–50. DOI : 10.1016/j.jsat.2016.01.006
- Towler, L., Bondaronek, P., Papakonstantinou, T., Amlot, R., Chadborn, T., Ainsworth, B., & Yardley, L. (2023). Applying machine-learning to rapidly analyze large qualitative text datasets to inform the COVID-19 pandemic response: comparing human and machine-assisted topic analysis techniques. *Frontiers in Public Health, 11*. DOI : 10.3389/fpubh.2023.1268223

Text Mining of Counseling Experiences among Youth Transitioning Out of Care - A Comparison of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Findings

JEONGWOO LEE Ph.D. Student, Department of Child Welfare &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OYEAN LEE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Welfare &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text mining analysis with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to gain a multi-dimensional understanding of the psychotherapy experiences of youth transitioning out of care and to explore the complementary perspectives offered by human-driven qualitative analysis and machine-based text analysis. In-depth interview data were collected from 10 care-leavers (three males and seven females) who had participated in psychotherapy after being discharged from out-of-home care. TF-IDF analysis and Latent Dirichlet Allocation(LDA) topic modeling were conducted on the transcripts and systematically compared with findings from a previous CQR study. A high degree of convergence was revealed between the two methods in identifying core themes that characterized clients' experiences. Both approaches highlight emotional difficulties, relational and daily-life stressors, interactions with therapists, and experiences of emotional support. Notably, the comparative CQR-text mining analysis demonstrated the differential contributions of the two methodologies to the same dataset. While CQR captured participants' subjective meanings and depth of experience, revealing nuanced qualitative changes in therapeutic relationships and internal reflection processes, text mining approaches objectively identified structural conditions, such as the number of counseling sessions and support modalities, as well as contextual differences related to the elapsed time since care termination, based on systematic patterns in the textual data. This suggests that interpretation-centered approaches and data-driven pattern analysis can complement and cross-validate each other, thereby expanding the integrated understanding of the same phenomen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qualitative and text-based pattern analyses information at different levels and can function complementarily.

Keyword

Youth Transitioning Out of Care, Psychotherapy, Client Experiences, Text Min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